

코오롱, 광학필름·전자소재 호조

상반기 영업이익 55% 증가 845억원 ... FnC코오롱과 시너지도

코오롱이 광학용 필름, 전자소재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은 200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8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3% 증가했다고 8월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947억원으로 9.2% 줄었지만, 순이익은 534억원으로 310.5% 크게 늘었다.

2/4분기에는 매출이 479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406억원으로 30.1% 증가했다.

코오롱은 상반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둔 배경으로 광학용 필름·전자소재 및 화학분야의 성장과 함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재 분야가 연착륙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최근 패션 전문기업 FnC코오롱의 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수출 중심의 산업재 부문과 지속적인 현금 창출능력을 갖춘 내수 중심의 소비재 부문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6>